금주의 법구-〈아함경〉
사물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통해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1호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법륜 스님(사진 맨 왼쪽) 등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 은 11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김덕룡 국민동생 상임공동대표, 박관용 제16대 국회의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이종찬 우당기념관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거국내각·하야"… 최순실 게이트에 '한목소리'

불교단체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 시국선언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비리 및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 정치계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前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 하야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으며, 전국 곳곳선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이어 진행됐다. 비단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 뿐 아니다. 종교계서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 은 11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할 것을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 새 총리가 여야 대표와 협의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로들은 "거국내각은 총리 책임 하에 국가운영을 안정시키고, 경제와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한다"며 "또 '최순실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및 개헌과정을 엄정 관리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정운영을 거국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선 "국가비상사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서 국정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하야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새 신임총리 후보자로 김병준 교수를 기습 발표한 데 대해선 "우리가 바라는 거국내각은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총리로 구성돼야 한다. 단순히 총리 1명 바꾼다고 이 사태가 해결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정운찬 前 국무총리, 박관용 16대 국회의장,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는 11월 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회정화와 실천적 도덕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승려들은 나라 살림과 국가 안위가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가 한 민간 신분의 비선실세에 의

법륜 스님 등 거국내각 촉구
15개 불교단체도 거센 비난
종립 대학생들까지 규탄 합세

해 유린된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함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심과 상식에 부응하는 국민적 행동에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표명했다.

불교인권위원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대한불교청년회 등 15개 불교단체도 11월 1일 조계사 일주문 앞서 '헌정유린 국민기만 박근혜는 하야하라' 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 불교단체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충격적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유린이란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의 진정한 참회와 하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엄중한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짜 맞춘 듯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임에 경고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정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민주주의불자회(회장 서동석, 前민중불교연합)는 10월 28일 '국기문란 헌정파괴, 박근혜는 사퇴하라' 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최순실 사태를 보며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는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하라"며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태 △거국 중립 내각의 구성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선 "여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중립적 수사를 펼칠 수 있는 별도특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도 각각 10월 28일과 31일 시국선언을 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 기사 3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선출

11월 1일 207회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화합·단결' 강조

부의장에 초격 · 이암 스님
후반기 상임분과위 구성도

조계종 제16대 후반기 종회의장에 원행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07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열고 후반기 종회의장에 원행 스님〈사진〉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종회의원 79명 중 7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개회 직후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선출 직후 "종단 내적으로 종도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장군 죽비가 부러져 나가도 끝없이 정진해 나가자"며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이 건설적인 내용이 되도록 소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많은 종도들이 16대 종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정한 출가자는 번뇌 속에 살면서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돼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본다"며 "의장으로 있는 동안 숯불이 되리라 생각한다. 숯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금방 꺼지지만, 모이면 빛이 오래간다. 34대 집행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종회는 의장 선출에 이어 수석부의장으로 초격 스님, 차석부의장으로 이암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으며 사무처장으로는 호산 스님이 의장 원행 스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어 후반기 상임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에 들어갔다.

한편, 개회 직후 전반기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우리 종단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 어느 때보다도 발전적이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사안을 제도화, 입법화하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돼있다"며 "안일한 과거를 타파하고 질적 추구를 하고있다. 종단 화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퇴임사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언제 헐릴지 모를 가건물서 '자비행', 이들을 도와주세요

11월 초 때 유난히 빨리 찾아온 추위가 우리들 몸과 마음을 바짝 얼어붙게 만듭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추울까요? 올여름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듯, 올겨울에도 동장군이 예년보다 더 위세를 떨친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의 재해서 가장 힘들어 할 이들이 있습니다. 쪽방촌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어떻든 난방도 열악한 1평 남짓한 비좁은 방에서 올 겨울 맹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곁엔 또다른 가족처럼 그들을 보듬고 온정을 함께 나누는 쪽방촌도우미봉사회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국에는 많은 쪽방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지는 이번주 영등포 지역 쪽방촌에 17년 동안 급식 나눔을 소리없이 실천해 온 작은 거인들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참 불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비나눔은 조금씩 큰 반향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빗장으로 세월과 이 사회를 꼭꼭 걸어 잠근 쪽방촌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어느 쪽방촌 주민은 자신과 같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 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고픈 강한 희망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상황도 안타깝지만 그들 곁에서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쪽방촌도우미봉사회의 사연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봉사회가 음식 준비를 하는 사무실은 언제 헐릴지 모르는 가건물입니다. 이들의 꿈은 마음 편히 봉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봉사회의 상황도 쪽방촌 현실과 다름없이 열악합니다. 후원이 절실 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관련 기사 14 · 15면〉

김주일 기자

후원계좌=국민은행 384737-04-004793, 예금주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

분노... 화...
불안한 대한민국,
위기의 아이들...
붓다의 사성제가 해결책이 될수 없는가?



자살학생 7년간 약 1,000명
학업 스트레스 지수 세계최고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한국 자살율 세계1위
암 발병율과 희귀병은 매년 증가하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깨달음 수행법은 ?
한국인의 불안한 현실속 근성과 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으로 방황하고 고뇌하며 불안해 하는
청소년과 한국인 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하며
위기의 한국을 구할 행복한 수행법이 될것 입니다.....

깨달음수행법의 1~2단계 수행은
학업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복한 수행법입니다.

NAVER 깨달음센터 검색

깨달음 센터
enlightenment center